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21.4% 증가

- 국해부에 따르면 '09년 3/4분기 자동차등록대수는 1,715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1만 6천대가 증가하였으며,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창이던 전년동기 증가대수인 5만 5천대에 비해 2배 이상(109.1%) 증가한 수치임.
 -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에 있어서는 35만 9천대를 기록해 전년동기 29만 5천대에 비해 21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한편, 이전등록대수와 말소등록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7.7%, 1.8% 상승한 51만 1천대와 25만 1천대를 기록함.
-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,284만대로 74.9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화물차 316만대(18.4%), 승합차가 108만대(6.3%) 등의 비중 순으로 나타남.
 - 용도별에 있어서는 자가용이 1,616만대(94.2%)를 기록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, 영업용이 92만대(5.4%), 관용차가 6만대(0.4%)인 것으로 나타남.
 - 지역별로는 경기, 서울, 경남 지역이 각각 23.1%(396만대), 17.2%(294만대), 7.5%(128만대)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,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 지역이 전체 시장의 45.5%를 차지하고 있음.
- 국토부는 국내 자동차 이용자들이 그동안 경기 침체 여파로 미루어오던 신규 차량 구매수요가 신차 구매시 세금 감면 혜택이 연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판매가 활성화 된 것이라고 분석임.
 -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한 자동차 내수활성화 정책 지원의 효과가 반영된 것임.

(3분기 차 신규 등록대수 전년동기대비 21% 증가,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, 10/8)